

광주시 보육대체교사 고용 갈등 7개월만에 해소

사회서비스원 등 4자 합의 도출... 권익 향상 TF 구성키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노조도 50일 만에 파업 잠정 중단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광주시청사에서 장기 속식농성을 벌여온 광주 보육대체교사들이 7개월 만에 광주시 산하 사회서비스원과 합의를 이루고 해산했다.

또 광주시의 직접 운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시립 제2요양병원 노조도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광주시·사측과 지속적인 협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25일 광주시의회 중재로 (재)광주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이하 민주노총)이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 고용 문제 등에 대해 4자 합의를 했다"

고 27일 밝혔다.

합의 내용은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과 권익 향상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연내 논의하고, 특히 보육대체교사를 공개 채용하되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의 일부를 수용해 사회서비스원 근무 보육대체교사에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노무사 출신인 채인지 광주시의원 등이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을 수차례 중재한 결과물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날 합의에 따라 지난 1월 13일부터 광주시청 1층에서 속식 농성을 해온 보육대체교사들도 해산

했다.

이번 광주 사회서비스원 고용갈등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해 고용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 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대체교사 공모 절차를 밟으며 시작했다.

기존 보육대체교사들은 고용 연장을 요구하며 광주시청 로비 농성에 들어갔고,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해 지난 4월 부당해고를 일부 인정 받기도 했다. 중노위에서도 3년 이상 경력 보유자를 내년 2월 4일까지 고용 계약하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화해를 권고했지만, 조정안은 최종 결렬됐다. 결국 중노위가 지난 7월 지노위 결정을 뒤집고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다행히 중노위 판정 후 광주시의 합의 노력과 노무사 출신 시의원인 채인지 광주시의회 '새로운노

동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덕분에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됐다.

김영선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보육대체교사 고용 문제가 전격 합의됨에 따라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사회서비스원지부도 입장문을 통해 "성과와 한계가 공존하는 아쉬운 합의지만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은 이어갈 것"이라며 "조속한 TF 구성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빠르게 해소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6일에는 광주시의 직접 운영 등을 요구하며 총 파업에 나선 시립 제2요양병원 노조도 50일 만에 파업을 잠정 중단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6일 오전 7시 30분을 기

해 쟁의 행위를 중단했다. 다음 달까지 병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는 광주시와 사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다만 광주시의 병원 직접 운영, 단체 협약 승계 등 노조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만큼 전면 파업 철회는 아니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전 조합원 60명 중 지난달 7일부터 파업에 참여했던 50명은 현재 병원으로 복귀해 정상 근무 중이다.

노조측은 "의료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 무작정 파업만 벌일 수는 없었다"며 "병원을 우선 정상화한 뒤 사측, 광주시와 지속해 협상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측은 현재 파업 장기화에 따른 공공의료 서비스 공백으로 입원 환자 180명 중 179명을 퇴원·전원 조치한 상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음악으로 뜨거운 광주 제14회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개막했다. 26일 오후 전당 내 빅도어에서 국내 정상급 랩퍼인 닉살과 카데호 밴드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민 80%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찬성

시의회 여론조사... 76.7% "도시계획위원회 모른다"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해 광주시민 10명 중 8명이 회의 공개 필요성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방식으로는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선호했다.

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시민 재산권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시민들 대다수가 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의회가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7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광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3.3%가 공개 필요성에 찬성했다. 40.7%는 '매우 필요하다', 42.6%는 '필요하다'고 답했고 '전혀 필요없거나 필요 없다'는 4%, 나머지 12.7%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공개방식은 '광주시 홈페이지' (47.8%), '실시간 유튜브' (28.9%), '사전 신청을 통한 현장 방

청' (12.1%), '녹화 후 사후 열람' (8.9%)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공개의 긍정적인 기대 효과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시정 참여 보장 (54.9%)이 가장 많았고 행정 신뢰도 상승 (20.9%),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 및 민주성 제고 (18.6%), 부패 연계 사전 예방 (4.6%), 기타 (1.1%)가 뒤를 이었다. 부정적인 기대 효과로는 정보 사전 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 (49.9%)를 가장 우려했으며, 민원 증가에 따른 계획 수립 지연 (30.6%), 위원들의 소극적 의견 개진 (11.3%), 공정성 저해 (4.6%), 기타 (3.7%) 등이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를 알고 있는지는 질문에 광주시민 76.7%가 '모른다', 23.3%만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수산물 소비 진작' 20억 투입

어민 돕기 남도장터 할인·수도권 직거래 등 판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예비비 20억원을 긴급 투입해 전남 어업인 돕기에 나섰다. 우선적으로 대대적이고 체계적인 수산물 판촉행사에 나선다. 지난 22일 전남도-수협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에 이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www.jnmall.kr)에서 '수산물

생생 할인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는 전복, 우럭, 장어, 참돔 등 생선류와 각종 해조류 가공식품을 포함한 256개 품목을 최대 30% 할인 가격으로 공급한다. 소비자가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전남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

9월에는 서울과 전남지역에서 수산물 직거래장

터를 열어 판촉전을 펼치고, 한가위 맞이 '수산물 선물 사주기' 운동도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10~11월에는 '취약계층 수산물 꾸러미' 지원과 '기업체-유관기관 방문 판촉활동' 등을 통해 어려운 어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예비비 20억 원을 활용한 어업인 지원 활동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어가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동참해 우수한 전남의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명창환 신임 전남도 행정부지사 오늘 취임

명창환(사진) 제43대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28일 취임한다. 신임 명 부지사는 전남도 안전행정 국장·기획조정실장·순천시 부시장 등 지방행정을 경험한 뒤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장·지역공통체과장 등을 거쳤다.

업무에 대한 파악 능력이 뛰어나고 추진력도 갖춰 민선 8기 도정을 전면에서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력과 상하 소통을 통한 포용적 리더십도 탁월하다. 명 부지사는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으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몰입호기'의 자세로, 전남 미래 100년의 토대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직원

들에게 '일하는 방식 변화', '소통과 협력', '청렴과 공정' 등을 강조했다.

고흥 출신으로 순천고, 전남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1회 지방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명 부지사는 28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첫 업무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목포종합경기장을 찾을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제2창업 원년! 새로운 도전"

라인그룹 경력사원 공채

2023. 08. 21(월) ~ 08. 31(목)

동양건설산업 라인건설 EG건설

■ 채용분야 및 근무지			
구분	채용구분	근무지	인원
건설/토목	경력	현장 본사	00명
		경영지원	0명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2023년 08월 21일(월) ~ 08월 31일(목)		
· 접수방법	동양건설산업, 라인건설 당사 홈페이지 (인재채용-채용공고-정기채용)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구분	기간	비고	
서류접수	2023. 08. 21(월) ~ 08. 31(목)	동양건설산업, 라인건설 홈페이지	
서류합격자 발표	접수기간 중 수시통보		
1차 면접	2023. 09. 06(수) ~ 09. 07(목)	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	
2차 면접	2023. 09. 13(수) ~ 09. 14(목)		
면접합격자 발표	2023. 09. 22(금)		
경력사원OT	2023. 10. 04(수) ~ 10. 06(금)		
출근예정일	2023. 10. 10(화)	현장 또는 본사 출근	

Line Group

건설사: 동양건설산업, 라인건설, 라인산업

금융/투자: 더블저축은행, 더블파이낸스, 더블캐피탈

관광/레저: 동양관광레저, THE PINESTONE, SUNHWASAM

에너지: 신안동력복합발전, 동양에너지

사회공헌: 라인문화재단, 라인장학재단, 동양장학재단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